

호남 출신 7명 등용...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 마무리

출범 37일만에... 현역 국회의원 8명·기업 출신 4명, 실용·전문성 강조 여성 후보자 26%·평균 연령 60.1세... 영남 6명 등 지역 배분도 균형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정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 안규백(전북 고창·광주 서석고)·환경부 김성환(여수)·외교부 조현(전북 김제)·통일부 정동영(전북 순창) 장관 후보자 등 호남출신 인사 7명이 등용되면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은 "11일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부 출범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19명 중 8명을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발탁하면서 국회와 협업을 강조하고 실용성이 강조됐다는 평가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동영(통일)·정성호(법무)·안규백(국방)·윤호중(행정안전)·김성환(환경)·강선우(여성가족)·김윤덕(국토)·전재수(해양수산)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3선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이고, 내각을 이끌 김민석 국무총리도 현역 의원 출신이다.

기업인과 전문가에 대한 과감한 발탁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두산에너지 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사장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보탰던 민간 전문가

로 뽑힌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후보자는 이진숙(교육)·정은경(보건복지)·강선우(여가)·한성숙(중기) 후보자와 유입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5명으로 전체 19명 중 26%를 차지했다.

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와 장관의 평균 연령은 60.1세로 집계됐다. 강선우(여가) 후보자가 47세로 최연소이고, 배경훈(과기) 후보자가 49세로 뒤를 잇는다. 최고령은 72세인 정동영(통일) 후보자다. 또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후보자 지역 배분은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호남 인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외교)·정동영(통일)·안규백(국방)·김윤덕(국토) 후보자가 전북, 김정관(산자)·정은경(복지)·김성환(환경) 후보자가 전남 출신이다.

영남 출신도 6명으로 호남과 비슷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은 구윤철(기재)·강선우(여가)·권오을(보훈) 후보자,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은 최희영(문체)·김영훈(노동)·전재수(해수) 후보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은 배경훈(과기)·윤호중(행안)·한성숙(중기) 후보자로 3명에 그쳤다. 이밖에 송미령(농림) 장관과 이진숙(교육) 후보자가 충청도, 정성호(법무) 후보자가 강원도 출신이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면서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번주 인사 청문회 '슈퍼워크'

오늘 여가 강선우·과기 배경훈·해수 전재수·통일 정동영 장관 후보

국회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내세우며 이들에 대한 방어에 돌입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임광현 국제경찰 후보자 청문회도 이날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됐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고됐다.

이 가운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6일)가 가장 뜨거운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강 후보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부처 수장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인명이 강행되더라도 '인선 반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고 보고 최대한 엄호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민주당의 미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같은 당 노종면, 김기표, 박선원, 김용만 의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찬대 "이 대통령, 호남권 근본적 발전안 구상중"

민주 당대표 후보 광주 토크 콘서트... "광주천 복원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설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광주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의 토크콘서트에서 박찬대 후보와 박선원(인천 부평을) 의원은 이같이 이 대통령의 의지를 소개했다.

토크콘서트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민주당의 미래!'를 주제로 이날 오후 6시 30분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노종면(인천 부평을)·김기표(경기 부천시)·김용만(경기 하남을) 의원 등이 게스트와 사회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노 의원이 박 후보와 같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광주·전남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발전의 핵심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7일 저녁(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여러 의원이 저녁을 먹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신정훈 의원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니(이재명)대통령님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남을 위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 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저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 설계를 개조·계획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재명, 김민석 그리고 박찬대, 김병기 '이김박김'이 하나가 돼서 해라라는 말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가 광주·전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핵심으로 만들 계획을 짰더니 민주당이 제대로 도움을 달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광주·영남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 광주·전남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후보는 "대통령님께서 뭘 해주겠다고 뛰어넘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호남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각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부응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호남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 국토부 장관이 호남에서 지명됐으니 잘 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양동시장 상인회장의 광주천 복원요구에 대해 "중앙정치에서는 깊이 논의되거나 의제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 "반드시 상인, 주민,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정준호(북구갑)·박균택(광산갑)·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 정장 등 광주 5개구정장 등이 참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대통령, 오늘부터 주요국 순차 특사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에 임명했다.

우선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

인 민주당 한병도·전준호 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하기로 했고,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오광록 기자 kroh@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